김정일 위원장 사망 관련 점검회의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12월 20일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하여 경제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제 금융시장, 국내 금융시장, 실물경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.

- 국제 금융시장의 경우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직후인 12월 19일 국제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한국물 CDS 프리미엄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함.
  - 또한, 정부는 국내은행 외화차입 여건 및 외화자금시장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,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북한 권력승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현 단계에서 한국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.
-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과거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직후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한 것과 같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소식 발표 직후 확대된 변동성이 안정되는 모습을 나타냄.
- 실물경제의 경우도 산업, 수출입,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 · 경영, 에너지 수급, 원자재 수급, 물류 등에 있어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.

■ 정부는 동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'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책팀'을 통하여 북한 관련 대내외 동향 모니터링,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, 비상대응계획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함.

- 과도한 불안심리로 시장이 급변하지 않는지 금융 · 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, 시장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자, 외신, 신용평가사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투자심리 안정에 노력함.
- 한 · 중 · 일과 G20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장안정을 위한 국제공조를 추진하고, 대외교역과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입, 바이어 · 투자자 동향을 점검함.
- 서민생활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생필품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여 필요 시 유통질서 확립 및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함.

(경제 · 금융상황 점검회의 결과, 기재부, 12/20)